

적정 임대료만 받아요... 전주지역 '착한 임대문화 정착' 위한

#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 50곳 ↑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사회적 공론화 주도

전주지역 적정 임대료만 받는 '착한 임대 문화'를 정착시킬 사회적 부동산 중개업소가 50곳으로 늘었다.

전주시는 약 1600개소에 달하는 전주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가 앞서 지정된 한옥마을 사회적부동산 8개소를 포함해 총 50개소로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는 시가 전주한옥마을과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등에서 도심 활성화로 상가 임대료가 상승해 동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공동체 상생발전 공감대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3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과 담

당 공무원의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총 50개소를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했다.

선정된 중개업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착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임대가격 폭등 문제의 심각성을 일반 공인중개사들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전주한옥마을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8곳을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선정했으며, 지난날 4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또, 선정된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와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전주한옥마을·객리단길 상가 건물 소유자와 간담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사회적 부동산중개업소로 지정함으로써 사기를 북돋아주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주거적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

전주시와 전주대학교박물관은 29일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방산 일원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개토제를 거행했다.

## 안전 스마트시티 구현 '블록체인'으로 해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비즈니스 모델 발굴 간담회

안전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보안 핵심기술로 평가받는 '블록체인' 분야 기업역량이 강화된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9일 진흥원 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 분야 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간담회를 가졌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으로 인식돼 있지만 암호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는 보안기술 중 하나로, 하나의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고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 복제·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로 위·변조가 불가능해 보안이 뛰어난 기술로 평가된다.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예측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주제로 기술 세미나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인공지능)'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보안 문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이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내 ICT기업의 블록체인 분야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최신 ICT기술에 대하여 지역 내 ICT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한국형 효과음원 데이터베이스' 사업계획이 과기부 '블록체인 기술건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 연말까지 국비 약억원 상당의 기술건설비를 받게 되며,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면 오는 2020년 블록체인의 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공모 과제에 추진할 방침이다./송효철 기자

주제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보안 문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이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내 ICT기업의 블록체인 분야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최신 ICT기술에 대하여 지역 내 ICT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한국형 효과음원 데이터베이스' 사업계획이 과기부 '블록체인 기술건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올 연말까지 국비 약억원 상당의 기술건설비를 받게 되며,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면 오는 2020년 블록체인의 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공모 과제에 추진할 방침이다./송효철 기자

## 언어치료 성과 '인정'

전북대병원 고명환 교수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 재활의학과 고명환 교수팀이 국제학회에서 언어치료 기능성 게임인 '스마트 스피치'를 이용한 임상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언어치료 의료기술 향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29일, 전북대병원 의료기증개발사업지원센터(센터장 고명환 교수)에 따르면 대한통합의학회와 일본이학요법과학회(JPTS)가 공동 주최한 2019 ICSPTS&KSIM에서 재활의학과 고명환 교수팀이 개발한 '스마트 스피치'를 이용한 임상연구가 학술대회 최고상인 'Grand Prize'를 수상했다. 연구발표는 의료기기개발사업지원센터 연구원 조윤주 언어치료사가

진행했다.

2019 ICSPTS&KSIM은 언어치료 분야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신경계, 정신사회, 보건과학, 건강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의 학문적 바탕에 의학적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통합하여 최상의 치료 방법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 규모의 학술대회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대한통합의학회와 일본이학요법과학회(JPTS)가 공동으로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구 활동과 연구 성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언어치료 기능성 게임인 '스마트 스피치'는 조음 및 발성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게 언어기능 향상을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고명환 교수 조윤주 언어치료사

고식적 치료기술을 뛰어넘어 환자 스스로 다양한 게임을 통해 언어기능 향상 훈련을 할 수 있어 임상적 효용성이 뛰어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과는 전북대병원의 자체 연구사업인 '보건의로 R&D 임상연구 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육성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재활의료기 기증개발사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포항공과대학(유희천 교수팀)과 ㈜휴머노피아가 공동 참여해 이루어졌다. /김영태 기자

##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해답은?

전주시, 청원공감한마당

어린이가 즐겁고 부모가 행복한 창의교육도시를 만들고 있는 전주시가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29일 시청 강당에서 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중 청원공감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교육현장의 변화에 따라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다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강사로 초청 '변화하는 세상과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장은 "우리교육의 현실은 한(한)으로 공(共)교육의 공(公)교육화, 사(私)교육의 사(死)교육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위기를 느끼고 답을 알고 있지만 실행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아이를 어제처럼 가르치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이 불러온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창의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아이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 스스로 나아갈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효철 기자

## 전북청 '꿈 키움 프로젝트'

전북경찰청, 군장대학교, 전북과학대학은 대학 진학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대학 입학비를 지원해주는 '꿈 키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 경찰청은 2018년부터 '꿈 키움 프로젝트'를 추진해 총 20여명의 청소년들이 대학에 입학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2020학년도 대학 수시 전형 일정에 맞춰 신청자를 발굴,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신임순경 지역경찰에 배치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현장중심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임순경(118명)을 지역경찰에 배치했다.

인사는 경찰서별 차인수요, 정·현원, 퇴직인원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경찰 과부족, 휴직 등 사고자 비율, 2020년 경찰관기동대 창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1급지 뿐만 아니라 2, 3급지 경찰서에도 배치를 확대하여, 모든 경찰서의 평균 연령을 40대로 조정했고 지역경찰 결원을 해소해 현장 중심 치안역량을 강화했다. /김영태 기자



고구마 수확 체험

29일 전주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전시포장에서 열린 고구마 수확 체험에서 도담이(이집) 아이들이 땅을 파며 고구마 수확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내달 6일까지 추가 신청접수

전주시, 총 10억원 투입 10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집을 고쳐주기 시작했다.

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기간이 지나 신청하지 못했거나 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복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의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전년보다 5억원보다 2배 늘어난 10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계층 250여 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건축허가가 필요한 개축이나 대수선 공사를 제외한 △주거약

지에 대한 편의시설 △안전전과 위생 △생활불편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등으로 중시분야 개량·보수공사 등으로, 시는 추가접수된 사업에 대해 오는 10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노후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주거복지과(063-281-5247)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재춘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이번 하반기 추가 신청을 통해서 노후주택의 도배장판 교체, 창호교체, 화장실 수리,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팔복동 산단에 '시민정원' 조성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 일환

전주시가 팔복동 산업단지에 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제공기로 했다.

전주시와 (사)푸른전주운동본부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조업 중심의 공장이 밀집돼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팔복동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이 조성과 관리에 참여하는 시민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7기 첫 결재사업인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곳곳의 유휴공간을 찾아 나무를 심어 녹지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팔복동 산업단지에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입주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오는

9월 중 공모를 통해 산업단지 여건과 주변환경을 고려해 부지를 선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정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팔복동 산업단지 시민정원 조성에는 참여기업 뿐 아니라 정원 디자이너들과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팔복동 산업단지 기업참여 시민정원은 조성 이후 시민들에게 개방해 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조성된 시민정원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업과 관리협약도 체결할 방침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대기 오염 물질과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팔복동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기업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시민정원을 제공함으로써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대여 실시

전주시가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려주기 시작했다.

시는 숙박업소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등의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9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료 대여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효율적인 대여서비스 추진을 위해 숙박업소가 밀집된 △중양동 △공남동 △중화산동 △효자동 △덕진동 △금암동 △우이동 △우이2동 등 8개동을 대상으로 시범 대여서비스를

추진하고, 이후 대역실적이나 주민 만족도 등을 고려해 확대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시민이나 사업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되며, 시범지역 외 시민들과 전주시 여성가족과(063-281-2344)로 사전 전화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빌려갈 수 있다.

시는 9월부터는 불법촬영카메라 단속을 숙박업소까지 확대해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스스로가 범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탐지장비를 무료 대여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